무비 스님 '불꽃 속의 연꽃', 부처님께 올리다

〈火中蓮華〉

11월 23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

무비 스님 전집 25권 봉정 대법회
성파 대종사 "무비 스님이 화중연화"
정여 대종사·수불 스님 등 헌정금
류지호 대표이사에 감사패 수여해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이 시대 살아있는 화중연화가 바로 무비 스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며 감로수입니다."

불꽃 가운데 연꽃을 피워낸 삶,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 이 시대의 대강백. 여천무비(如天無比) 스님의 삶이다. 무비 스님의 일생 대작 〈화중연화〉 전집 25권이 부처님 전에 봉정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1월 23일 경내 보제루에서 무비 스님의 전집출간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화중연화〉는 무비 스님이 일생을 통해 남긴 저서를 모은 전집이다. 81권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공저를 제외한 29종 총 33권의 책을 모아 25권으로 재정리한 전집이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불국사 학장 덕민 스님, 수덕사 전 방장 설정 스님,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등 참석 내빈들은 스님의 책을 봉정하며 축하했고, 정여 스님, 수불 스님, 명심회 성문 스님, 정오 스님은 무비 스님에게 헌정금을 전달했다. 무비 스님은 전집출판을 위해 노력한 류지호 불광출판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무비 스님은 "모든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그대로가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 까닭에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쏟아진다. 오늘 봉정한 책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성파 대종사는 "〈화중연화〉야말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말씀을 전부 총망라해 현대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석해 놓은 출판물이다.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법문 책을 출간하셔서 이 사회 모든 사람에게 감로법문이 내리도록 하는 그런 공로에 대해서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축사를 전했다.

무관 스님은 "동중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신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11월 23일 경내 보제루에서 무비 스님의 전집출간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오늘 출간되는 화중연화는 큰스님의 수행과 지혜의 결정체이며 후대에도 변함없이 전해질 소중한 유산"이라며 "무비 큰스님의 법문이 한국불교를 넘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저희들은 무비 큰스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학들이 큰스님 법문집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쿠무다, 불교문화 공모전 연다

대불련 소속 회원 대상으로
11월 25일~12월 10일 공모

한국 불교문화의 방향을 고민하고 창작물로 제시하는 공모전이 진행된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1회 창작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소속 불교 동아리 회원이다. 주제는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다.

응모 형식은 글, 그림, 캐릭터, 포스터, 사진, 영상, 작곡 등 개인 창작물이면 가능하다. 이외 에세이, 보고서, 기획안, 제안서 등도 가능하다. 텍스트 형식의 창작물이 아닌 경우 작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접수 방법은 대불련 홈페이지(www.kbuf.org)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ilovekbuf108@gmail.com)로 작품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12월 17일, 시상식은 12월 23일 오후 3시 '쿠무다 개원 1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식 장소는 쿠무다 콘서트홀이다. 공모전 대상은 300만원(1명), 최우수상은 200만원(1명), 우수상은 100만원(3명)의 상금을 전달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난방비 지원금 전달

11월 21일, 1000만원 후원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11월 21일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난방비 지원금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난방비는 부산 8개 구군 소속 노인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노인 가구 40세대에 전달됐다. 전달식 후 회원스님들은 영도구 청학동을 방문해 지원세대 대상자 가정에 난방유를 전하고 격려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탄불공회는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2017년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동절기 난방 지원 사업으로 연탄 나눔이 본격 전개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복지법인 범어 2024 범어복지대회

11월 22일, 범어사 선문화관

사회복지법인 범어(대표이사 정오 스님)는 11월 22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024 범어복지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복지대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 사회복지법인 범어 대표이사 정오 스님 등이 동참했다. 표창은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의 이승아, 연화원 박은숙, 수영구 청소년문화의 집 김주경 등 봉사자와 후원자 총 21명이 감사패와 상장을 받았다.

정여 대종사는 "봉사자와 실무자들이 사랑으로 복지를 일궈갈 때 불국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본격화

범어사 · 부산시, 업무협약 체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부산시가 11월 26일 경내 보제루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을 통해 범어사와 금정산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협약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2006년에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6년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염원이 본격화됐다. 부산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으나 이후 범어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 6개 자치구,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왔다.



금정총림 범어사와 부산시가 11월 26일 경내 보제루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범어사와 부산시 그리고 금정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해 부산의 진산(眞山)인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호 협력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 및 탐방로 개설 지원 △범어사와 그 주변 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등 상호 공동 노력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상생을 위한 발자취이자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의 협약이 길이 남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부산과 금정구를 위해 범어사가 해야 할 역할에 고심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며, 향후 주민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포교사단, 자비의 김치 나눔

11월 2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서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하 부산포교사단)이 11월 2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비의 김치나눔'을 개최했다.〈사진〉

김장나눔에는 송재린 부산포교사단 단장, 정분남 전 부산포교사단 단장, 강태산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아름누리 봉사단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포교사단 단원들은 김치를 담궈 포장했으며 지원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아울러 후원금 200만원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부산포교사단의 자비나눔에 동참하며 아름누리 봉사단도 100만원을 후원했다. 김장김치는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저소득 독거노인 100세대에 각 5kg씩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